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사상

— 중국 마르크스주의 이념의 단절과 지속 —

강 원 택 *

| <目 次> | |
|---------------------|-------------------------|
| I. 서 | 1. 모택동 사상의 재평가 |
| II.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 | 2. 등소평의 정치 개혁 |
| 1. 중국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사상 | 3. 새로운 사회주의의 이념 |
| 2. 모택동의 모택동사상 | IV. 결론 : 이념적 지속성에 대한 전망 |
| III. 모택동 유산의 단절과 계승 | |

I. 서

소련과 동구 등 과거 사회주의권으로 대별되던 국가들이 급격한 체제 변화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듯이 보인다.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은 지난 해 전 총서기 호요방(胡耀邦)의 장례식을 계기로 폭발한 중국 인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사회주의 이념의 고수와 공산당 일당지배의 관철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은 소련, 동구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10년 가량 일찍 정책의 전환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 왔다. 모택동(毛澤東) 사후 등소평(鄧小平)의 권력 장악과 동시에 이뤄진 이러한 정책상의 전환은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의 결정을 통해 과거의 폐쇄적이고 자립적인 경제정책으로부터 대외개방과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생산력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정책상의 전환은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의 경직되고 교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에 따른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주목을 끌었다. 실사구시(實事求是)로 요약되

* 서울대, 정치학박사과정

는 이러한 이념적 유연성은, 그러나, 경제반좌 정치반우(經濟反左 政治反右)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와 공산당 지배 등 수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작년의 천안문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따라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속한 사회주의 체제로부터의 이탈과는 달리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와 지도이념으로서 마르크스-레닌-모택동사상의 고수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제일 먼저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 온 중국이 오늘날에 와서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중국의 지도 이념은 4항 기본원칙⁽¹⁾에서 나타나듯이 마르크스-레닌-모택동사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특히 모택동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한 중국적인 마르크스주의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등소평의 노선 및 체제의 정당성과 추진력이 과거 모택동의 이념적, 노선적 폐해로부터의 교정 및 회피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오늘날 중국의 지도사상으로서의 모택동사상은 과거의 그것과 비교할 때 어떤 면에서든 질적인 변화를 겪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지도이념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택동사상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는 일은 현대 중국의 이념적 특징과 한계, 소련, 동구와 구별되는 중국 사회주의의 본질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는 중국혁명과 모택동 집권 당시의 모택동사상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여 등소평 체제 하에서 표현되는 모택동사상을 살펴 오늘날 중국의 이념적 특징과 중국 마르크스주의의 모습을 밝혀 보고자 한다.

II.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

1. 중국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사상

오늘날 모택동사상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 평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원리에 근거하고 중국의 오랜 혁명실천이라는 독창적 경험에 만들

(1) 4항 기본원칙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마르크스·레닌·모택동사상의 전지, 人民民主專政, 사회주의노선의 견지 등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를 골간으로 하는 중국의 통치원칙이다.

어 낸 이론으로 중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과학적 지도사상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원리와 중국혁명이라는 구체적 실천을 상호 결합시킨 산물로 파악하고 있다.⁽²⁾ 또한 사회주의권의 체제 변혁 움직임이 두드러졌던 1989년에도 중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야말로 중국의 전진을 지도할 승리의 깃발이며 중국의 조건과 결합된 마르크스-레닌주의인 모택동사상만이 중국을 구원할 사상으로 강조하였다(張震, 1990). 모택동사상에 대한 최근의 이와 같은 강조는, 모택동사상에 대한 해석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혁명 중에서 부인할 수 없는 모택동의 지도적 위치에 대한 인정임과 동시에 최근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모택동의 권위를 동원하여 체제안정을 폐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최근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체제변화를 거부하기 위해 중국은 다른 국가의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중국적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이론적 방파로서 공산혁명 과정에서 중국적인 혁명의 길을 강조한 모택동의 사상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모택동사상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세계 사회주의권에서 갖는 모택동사상의 의미, 곧 중국적 마르크스주의라는데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다.

중국적인 길을 강조한 모택동사상은 중국혁명의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사실 중국혁명은 사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구 열강의 침략과 도전으로 인해 비롯된 중국의 전통적 질서와 세계간의 붕괴를 극복하고 정체감을 회복하기 위한 중국의 대응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모택동사상은 아편전쟁 이후 계속되어 온 중국인들의 사상적 모색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편전쟁 이후의 개혁 움직임은 양무(洋務), 변법(變法) 등 청조라는 전통적 체제 내부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신해혁명(辛亥革命)을 전후해서는 서구적 민주주의 체제의 수용이 적극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틀 속에

(2) 모택동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화한 것으로 평가한 공식언급은 1945년 연안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7기 전국대회에서 유소기(劉少奇)가 행한 연설 가운데 처음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평가는, 다소 맥락의 차이는 있으나, 등소평의 노선이 확립된 1981년 6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1기 6중전회에서도 통과된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위의 표현은 1981년의 결의 내용 중 일부이다.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 『人民日報』, 1981.7.1.

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었으며 따라서 반식민, 반봉건적 상황에서 시달리고 있는 중국의 구원을 위해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그 뒤 진독수(陳獨秀) 등이 주도한 신문화운동에서는 전통이 부정되고 그 대체물로 다양한 서구의 사상이 모색되었지만 5·4운동과 러시아혁명을 통해 중국의 구원을 위한 희망으로 여겨졌던 서구가 바로 중국의 타락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Schwartz, 1983:36), 러시아혁명의 적접적인 자극과 함께 중국의 사상계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혀 가게 되었다.

모택동의 사상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의 특별함은 당시 중국의 마르크스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소련의 지도와 노선을 거부하고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새로운 방식을 주장한 데 있다. 모택동사상의 이러한 특징은 혁명 당시 공산당 내의 권력다툼과도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다. 즉 모택동의 사상을 중국적인 마르크스주의로 이론화하기 시작한 것이 1937년 경이었는데 당시가 왕명(王明) 등 소련유학파와 대립하고 있던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보다 정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입장을 갖는 그들에 대해 중국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는 일은 당내의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이후 혁명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모스크바와 코민테른의 지시와 간섭으로부터 이념적, 조직적 독립을 확보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Wylie, 1979:462). 모택동사상의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공산당 내에서 모택동이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은 바로 당 내부에서 모택동이 교리적 소외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중국혁명의 역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Wakeman, 1973:3-4).

그러나 모택동사상의 비교조직인 특징은 그것이 혁명이라는 구체적 경험을 겪으면서 형성되어 온 탓에 매우 현실적이며 유연성을 갖는데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아편전쟁 이후 중국인들이 다양한 서구사상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반식민, 반봉건적인 현실로부터 근대적이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이루어내려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시 부국강병을 위한 ‘도구적 유용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받아 들여졌다는 데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조적이고 정통적인 것과 구별되는 모택동 사상의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모택동은 “우리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부하는 것은 그것이 보기 좋다거나 어떤 신비한 것을 지니고 있

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³⁾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적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모택동의 최초의 명백한 언급은 1938년 10월 『中國共產黨在民族戰爭中的地位』라는 글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모택동은

“우리들은 마르크스주의 역사주의자로서 역사를 단절해서는 안된다. 공자로부터 손문까지의 역사를 모두 결합하고 그 가운데의 귀중한 유산을 계승하여야 한다. … 마르크스주의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특징과 결합하고 일정한 민족적 형식을 거친 후에야 실현될 수 있다. …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는 중국에서 구체화되고 그 모든 표현 속에는 반드시 중국적 특징을 가져야만 한다”(모택동 Ⅱ, 1968:499-500)

고 말했다. 모택동의 이러한 표현은 아편전쟁 이후 끊임없이 부정되어 온 중국의 전통이 모택동에 이르러 새로운 형태로 마르크스주의와 결합되고 있으며, 외래사상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중국적인 것으로 토착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 뒤 1940년에 발표한 『新民主主義論』에서 보다 분명한 어조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모택동은

“소위 전면적 서구화(全般西化)의 주장은 잘못된 관점이다. 외국 것에 대한 형식적 흡수로 인하여 중국은 과거에 큰 손실을 입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에 적용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완전하고 옳바르게 결합시켜야 한다. 즉 민족적 특징과 결합하고 일정한 민족형식을 거쳐 적용해야 하며 주관적이고 공식적으로 적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 중국문화는 마땅히 자기의 형식을 지녀야 하며 그것은 바로 민족형식이다”(모택동 Ⅱ:667)

고 하여 서구적인 것에서 중국 구원의 희망을 모색한 과거를 비판함과 동시에 혁명과정에서 러시아와 구별되는 중국적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모택동의 사상은 흔히 레닌과 비교되어지는데, 레닌의 사상이 원래 19세기의 유럽사상인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여 그것을 러시아로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 적용시키고, 보다 높은 형태로 발전시킨 러시아화한 마르크스주의(Russianized Marxism)이라면, 레닌주의를 중국이라는 특정 환경 속에 적용하고 발전시킨 것은 바로 모택동사상이라는 평가이다(Wylie, 1979:

(3) 이 표현은 모택동선집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단지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은 “무산계급 혁명사업이 승리로 진군하도록 영도하는 과학이기 때문이다”로 바뀌어 있다. 여기의 표현은 Boyd Campton(1952:21-22)에서 인용.

457). 다시 말해 모택동은 마르크스주의를 유럽형에서 아시아형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그 업적이 평가되고 있다(Schram, 1981:243). 따라서 모택동 사상의 핵심은 레닌주의를 받아들였으나 그것의 일방적 추종을 거부하고 중국적인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었다는 데 있으며, 바로 그 점이 오늘날 주변 사회주의권의 전반적인 변화속에서도 그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라는 독자적 노선을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지탱하게하는 내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2. 모택동의 모택동사상

등소평의 권력 장악은 모택동의 노선을 추종한 소위 4인방과⁽⁴⁾ 모택동의 무오류성을 강조한 화국봉(華國鋒)등 양개범시파(兩個凡是派)와의 권력투쟁의 승리를 통해 이뤄졌다. 그리고 중국의 정책전환이 이뤄진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의 결정은 사실상 모택동노선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일반적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중국이 모택동사상을 여전히 지도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모택동이 추구했던 것과는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등소평의 권력장악과 노선의 정당성 및 지지가 모택동의 지도에 의해 이뤄졌던 과거 정책의 폐해로부터 얻어진 것임을 감안할 때 오늘날 이야기되는 모택동사상은 모택동의 생존시에 강조되던 모택동 자신의 입장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절에서는 중국혁명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해방 이후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친 모택동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1) 인간과 교육

모택동은 노동자의 폭동이 아닌 전쟁을 통해 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공산주의자 중의 하나였지만 처음 구성된 흥군(紅軍)은 혁명의식과 사상적 무장이 갖춰진 정예는 결코 아니었다. 흥군은 대부분 농민과 노동자였지만 유민 및 심지어 정강산(井崗山)의 산적 무리도 포함되어 있었다(Snow, 1985:166). 이와 같은 구성원의 잡다함은 이후에도 지속되는데 그것은 장개석(蔣介石) 군대와의 군사적 투쟁이라는 상황의 절박함과 아울러

(4)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공식평가는 4인방이 모택동노선을 추종했다고 보지 않으며 이와는 반대로 4인방에 의해 모택동사상이 왜곡, 훼손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모택동사상에 대한 현 집권층의 평가에 대해서는 3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후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중국 민족주의의 발양(Johnson, 1962)에서 비롯된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모택동의 인간관에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인간관이 사회경제적으로 조건지워진 계급이라는 틀을 통해 규정하는 것에 비해 모택동은 계급적 출신이 정치적 입장과 역할을 필연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⁵⁾ 따라서 산적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을 통해 그들의 본성을 변화시키면 훌륭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정치, 사회적 일체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Schram, 1969:415).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한 인간의 가변성에 대한 모택동의 믿음은 계급적 관대함으로 나타났다. 『新民主主義論』에서 모택동은 국가운명을 결정하는 기본 세력으로 무산계급, 농민 이외에도 지식분자와 소자산계급을 포함하였으며 해방 직전인 1949년 6월에 발표한 『論人民民主專政』에서는 노동자계급, 농민계급, 도시소자산계급과 민족자산계급까지 인민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을 통해 계급적 일체감을 얻을 수 있다는 모택동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모택동에게 있어 교육의 중요성은 사상적인 측면이며 많은 지식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모택동은 학문과 연구를 통한 전문적인 지식의 획득을 부정하였다. 실제로 모택동은

“사상개조, 특히 지식인의 사상개조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민주주의적 변환과 진보적 산업화에 중요한 조건이다” (Schram, 1981:260)

라고 하여 지식인에 대한 그의 적대감을 드러냈으며, 현실적인 체험과 노동을 통한 농촌형의 현장지식을 보다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은 공산주의의 이상적 인간형의 창조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상주입과 육체노동의 중시라는 형태로 전개되었으나, 전문지식에 대한 모택동의 경시는 이후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2) 농촌과 도시

중국혁명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혁명주체로서의 농민과 농촌

(5) 모택동의 영향력이 극도에 달했던 문화혁명기에는 계급이 비록 경제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었다. *Peking Review* (1967.9.29)

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만큼 농민과 농촌중심의 혁명전략은 중국혁명의 고유한 특징을 대표하는 것이다.

모택동은 이미 1925년에 발표한 글에서 농촌의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극소수의 대지주와 부제지주를 제외한 대다수가 피착취농민이라고 하여 중국 사회의 주요모순이 부르조아-프롤레타리아간의 문제가 아닌 지주-농민간의 것임을 밝혔다(Schram, 1969:241-244). 또한 2년 후에 발표한 글에서는 농민이 단순한 수적 우위를 점할 뿐만 아니라 혁명의 역량에서도 선봉임을 주장하였다.

“우리가 민주혁명의 성취를 10으로 본다면, 도시거주자와 군인은 단지 3정도의 비중에 불과하며 나머지 7의 비중은 농촌의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⁶⁾

라는 말은 모택동이 농민을 혁명의 기반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혁명적 창조력과 정치적 판단기준의 원천으로 간주하였고 농민들의 자발적 혁명활동과 집단적 잠재력을 친양한 것이라고 하겠다(Meisner, 1988:141-143). 당시 중국의 근대적인 도시들이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놓여있었음을 감안할 때 모택동에게 도시는 마르크스에게서처럼 혁명의 무대가 아닌 외부세력의 거점이었다. 따라서 도시는 이질적인 곳이며 농촌은 보다 중국적인, 중국고유의 요소가 보존되어 있는 장소로 이해되었다(Meisner, 1988:146).

농민의 혁명역량에 대한 믿음과 농촌지역의 상대적 순수성에 대한 중시는 혁명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해방 후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문화혁명 중에 제창되었던 3대 차별의 극복은 노동자와 농민, 도시와 농촌,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간의 차별을 극복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의 해결책은 농촌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육체적 편리함을 제거하고 하방(下放) 등을 통해 농촌의 생활양식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결국 문화혁명은 도시에 대항하는 농촌의 운동이며 노동자에 대한 농민의 운동이란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Schram, 1981:320), 여기서도 모택동의 이상적인 삶의 근거가 도시적인 것이 아니라 농촌에 놓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이 내용은 1951년에 발간된 모택동선집의 본문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중시하는 노동자의 비중에 의해 지나친 농민의 지도력에 대한 강조를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Schram 1969:252).

(3) 군중노선

혁명의 과정에서 농민의 혁명적 자발성과 잠재력을 신뢰한 모택동은 해방 이후 정책추진과정에서 인민 대중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군중노선을 취하게 된다.

모택동의 군중노선은 연안(延安)의 경험을 통해 확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Meisner, 1977:31-51). 연안 시절의 경험은 그것이 공산혁명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연안정신’이라는 혁명투쟁의 영웅적 전통을 창조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생활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절제, 겸소, 근면과 자기희생과 같은 금욕적이고 평등주의적 가치관이 혁명의 추진력으로 찬양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 영역에서 상층의 통제라는 관료주의적 지배를 대신하는 군중노선이 강조되었다. 이는 지방적 필요와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광범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분권적 정치구조와, 당간부, 정부관리, 지식인들이 정기적으로 대중과 함께 직접 생산노동에 참가하는 하방 등의 운동으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연안의 경험은 지도자와 대중의 간격을 좁혀 줄 수 있으며 관료주의의 병폐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실제 경제정책의 추진에서 있어서는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연안의 경험이 혁명과정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도 본질적인 것으로 믿고 있는 모택동에게, 혁명의 승리가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옮겨지면서 혁명전사들은 관료가 되어 대중과 분리되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에만 관심을 갖게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모택동은 『中國共產黨在民族戰爭中的地位』에서

“공산당원은 민중운동 중에서 마땅히 민중의 친구이어야 하며, 민중의 상사(上司)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많은 이들의 지칠줄 모르는 스승이 되어야 하며 관료주의적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모택동 Ⅱ:488)

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모택동의 관료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관료 중심의 계획경제노선과 상충하게 되는 것은 어찌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의 교정을 위해 모택동은 대중동원과 관료적 특권의 박탈을 추진했다.

그러나 반관료적이고 분권적인 연안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이러한 노선의

전개가 모택동의 개인숭배와 권력의 집중으로 귀결된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 부단(不斷)혁명

마르크스의 역사발전이론이 단계적 발전을 거쳐 공산사회라고 하는 궁극적 도달점을 상정하고 있음에 비해 모택동사상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은 최종단계의 성취가 결코 완전성을 지닌 고정체가 아니며 대립되는 것들 간의 끊임없는 변화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점이다. 『矛盾論』에서 모택동은

“소위 형이상학적이고 저속한 진화론적 우주관은 고립되고 정지된 단편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본다. … 유물변증법적 우주관은 사물의 내부로부터, 사물간의 관계로부터 사물의 발전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물의 발전은 사물 내부의 혼연적인 자기 운동으로 간주해야 하며… 사물의 운동은… 사물의 내부에 포함된 두 가지 모순하는 요소가 상호 투쟁함으로써 발생한다” (모택동 I :275-307)

고 하여 변화를 사물의 본래적 속성으로 간주했다. 또한 1958년에는 “균형 상태는 순간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며, 불균형상태(disequilibrium)는 정상적이고 절대적인 것”(Ch'en, 1970:66)이라고 하여 이러한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 고정적이지 않은 변화의 상태를 궁극적인 것으로 간주한 모택동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산사회라는 것 역시 변화상태의 정지라기 보다는 끊임없는 운동과 추구의 과정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택동은 공산사회에서도 여전히 투쟁은 존재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달성하게 되면 투쟁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달성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투쟁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Schram, 1974:297-298)

그런데 모택동의 부단혁명은 공산사회로 중국을 이끌게 할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경제, 기술적 혁명과 정치적 이념적 전선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는데 사실 강조점은 후자에 놓였다(Ch'en, 1970:129). 모택동은 인간의 의지와 의식에서 변화의 동력을 찾았으며 따라서 발전의 조건으로 순수한 의식의 유지를 위한 사상혁명이 강조되었다. 모택동에게 있어 계급은 경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의식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자본가 계급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사탕발림은 우리 대오 중 의지가 약한 자들을 정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산당원들은 창을 가진 적은 정복하였으나…사탕이 발린 포탄의 공격 앞에는 패배하고야 만다” (모택동 Ⅱ:1328)

고 모택동은 일찍이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막고 공산주의적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계급간의 투쟁, 곧 변혁이 요구되며 혁명은 결국 영원한 자기정화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Ⅲ. 모택동 유산의 단절과 계승

1. 모택동사상의 재평가

모택동의 영향력이 강했던 때에 나온 모택동사상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이었다. 그것은 유일한 진리였으며 심지어 신앙으로까지 숭배되기도 했다. 그러나 모택동 사후 모택동의 극좌적인 노선을 추종한 4인방이 제거되고 모택동의 무오류성을 주장한 양개범시파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새로운 권력층에서는 모택동의 영향을 딛고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택동사상으로부터의 이탈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고민은 모택동사상에 대한 전면적 부정은 결국 그의 지도 하에 이뤄진 중국혁명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갖게 되며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존립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데 있었다. 이는 마치 흐루시초프에 의해 행해진 스탈린 격하에 대한 모택동의 적대감과 유사한 논리성을 갖고 있다. 스탈린의 말년 20년간의 모든 정책이 근본적으로 좌파와 오류로 가득찬 것이라는 흐루시초프의 비난은 결국 스탈린시대에 이루어진 세계공산주의운동을 부정하는 것이 되며 간접적으로는 이 운동의 지원으로 권력을 획득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불신하는 것이 되므로 중국은 스탈린의 격하를 논리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Schram, 1981:273). 따라서 모택동에 대한 평가는 그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 정체에 있어서의 비모택동화—곧 모택동으로부터의 해방과, 통합원리로서의 모택동신화의 보존이라는 2가지 모순된 요청의 처리에 놓이게 되었다(한광수, 1988:121).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체로 두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하나는 모택동과 모택동사상을 분리하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모택동사상의 재해석이었다.

모택동사상은 1945년 중국공산당 7전대회를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한 지도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식재평가는 1981년 6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6중전회에서 채택한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를 통해서였다. 이 결의에서 모택동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원리에 근거하고 중국의 오랜 혁명실천이라는 독창적 경험이 만들어낸 이론으로 중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과학적 지도사상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원리와 중국혁명이라는 구체적 실천을 상호 결합시킨 산물로 규정하여 모택동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여전히 중국의 지도이념임을 선언하였다. 이 결의 가운데 특히 모택동사상은 모택동의 개인적 사상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건설과정을 통해 형성된 중국 공산당의 집단적 지혜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모택동 개인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산혁명과정과 건국 초기까지의 탁월한 영도력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 등의 극좌노선을 태합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 과오를 저지른 것으로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는 결국 지도자로서의 모택동과 그의 사상을 분리하고, 모택동 비판을 통해 과거 노선으로부터 정체전환의 정당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그 사상을 집단적인 것으로 귀속시켜 모택동의 비판이 중국혁명과 공산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초래하는 결과를 막으려는 신증합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모택동사상은 모택동 개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당전체의 집단적 예지, 행동원칙 혹은 정치적 통합의 신화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한광수, 1988 : 124).

두번째로 들 수 있는 모택동사상의 평가는 그의 사상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 것이었다. 집단적 지혜로 규정된 모택동사상이 모택동의 실제 생각과는 분리되었으므로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해석이 요구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모택동사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처음에는 화국봉등 양개법 시파와의 대결 중에서 부각된 것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중국 현대사에서 부정할 수 없는 모택동의 권위를 빌어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모택동 사후 권력을 잡은 화국봉은 兩個凡是(凡是毛主席作出的決策 我們都堅決維護, 凡是毛主席的指示 我們都始終不渝地遵循)라고 하여 모택동이 생전에 행한 모든 것이 옳으며 그 유업을 고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

였다. 이에 대해 등소평은 모택동사상의 핵심은 교조주의에 반대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이므로, 진정한 모택동사상의 계승은 객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론과 실제를 통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하여

“사상이 경직화되면 실제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본본주의(本本主義)⁽⁷⁾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정당, 국가, 민족이 만약 모두 본본주의에서 출발한다면 사상은 경직화되고 미신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진전할 수 없고 생명력을 잃게 되어 당과 국가는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정풍운동 중에 반복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등소평 I, 1989:162-163)

라고 말한 바 있다.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이뤄진 중국의 정책전환은 화국봉의 양개법시론에 대한 등소평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 회의에서 양개법시론은 유심주의(唯心主義)에 입각하여 과거의 좌경적 착오를 견지한 사상으로 비판되었고 실천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으로 선언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등소평의 모택동사상에 대한 해석은 비록 모택동 자신의 생각과 본질적인 내용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모택동사상이 중국 마르크스주의의 수용과 전개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레닌의 사상과 러시아 혁명의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중국적인 특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무조건 모택동사상의 왜곡이라고 할 수 만은 없다. 다시 말해 모택동은 혁명과정 중에 러시아의 교리와 지침을 무조건적으로 중국에 적용하려고 한 자들에게 그들의 교조적인 자세를 비판하였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혁명의 성취를 위한 도구적 유용성의 기준에서 파악할 것을 강조하며 중국적인 길을 주창하였다. 아이러니칼하게도 등소평은 바로 이러한 모택동의 현실주의적 태도를 이용하여 모택동의 영향력 제거 및 그의 사상으로부터의 이탈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모택동사상의 발전으로 간주하였다(등소평 I:151-152). 그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해서는 그것의 체계를 반드시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택동사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까? 당연히 모택동사상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해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택동 동지는 연안에서 중앙학교의 설립에 대한 제사(題詞)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實事求是』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이것은 모택동사상의 정수입니다” (등소평 I:84)

(7) 本本主義란 교리에 맹종하는 교조주의적 태도를 말한다.

라고 하여 이와 같은 태도야말로 모택동사상에 대한 옳바른 이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등소평은 모택동사상 가운데 그의 방법론을 수용하여 그의 정책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모택동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성과 중국혁명의 특수성을 결합시킨 것이라는 당의 공식평가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택동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중국의 지도이념으로 존속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함께 중국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이 새삼스럽게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물론 사회주의의 고수라는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와 함께 등소평이 받아들인 모택동사상—곧 다른나라의 경험과 구별되는 중국의 독자성에 대한 강조—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곧바로 중국의 변화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중국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2. 등소평의 정치개혁

이와 같은 모택동사상의 재평가는 현실적으로 실제 정치면에서도 모택동시대의 암영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의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무엇보다도 정치제도가 경제정책수행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 하에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1987년 10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조자양(趙紫陽)은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라는 보고문을 통해 개혁의 목표가 고도로 민주적이며 법체계가 완비된, 효율이 높고 활력에 충만한 사회주의 정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자양, 1987: 264). 그런데 이와 같은 정치체제 개혁의 방향은 크게 제도화, 분산화, 전문화의 세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어 왔다.

제도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과거와 같은 일인자배로부터 탈피하여 정치과정을 제도적인 틀에 의해 규제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택동시대에 이뤄진 많은 폐해는 결국 권력이 특정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탓에 비롯된 것이므로 이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의 인치(人治)를 법치(法治)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민주주의를

제도화, 법률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제도와 법률은 지도자의 교체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하고 지도자의 관점과 생각이 바뀜에 따라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등소평 I :166)

라는 등소평의 말은 정치개혁의 동기와 도달점이 어디인지를 명백하게 밝혀 주고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상대적 권한축소와 정부권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과거처럼 이념이 최고의 가치로 간주되던 시절에는 이념의 문제를 관광하는 당의 지도와 권한이 절대적인 것이었으므로, 탈이념의 실용주의적 노선을 추진하는 등소평 체제에서 지난 날 과도하게 강화된 당의 권한을 축소하고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정치체제 개혁은 우선적으로 당, 정간의 기능적 분리에 놓이게 된다. 그것은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당의 역할을 제한하고 당의 기능은 정치지도에 국한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즉 과거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당의 권한은 정치원칙, 정치방향, 중대한 정책결정에 관해 지도하고, 국가기관의 중요간부를 추천하는 업무로 역할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조자양, 1987 : 265). 이와 같은 당, 정간의 기능분리는 이를 통해 과거와 같은 당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여 정책추진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나친 이념화의 강조를 제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법치의 실현을 위한 이러한 당, 정간의 분리정책은 자연히 그 근거로서 법제(法制)를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의 모든 기구는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행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당조직, 인민대표대회, 정부, 사법기관, 대중단체, 기업 등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가장 촛점이 모아지고 있는 곳은 역시 당으로, 조자양은 이에 대해

“당은 인민을 지도하고 헌법과 법률을 제정했으므로 당은 마땅히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조자양, 1987 : 265)

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제도화의 문제는 과거에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계각층에까지 뿌리내리고 간섭해 온 당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고 정책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자의적 행위를 규제하여 실제 행정기관의 활동을 보장하여 정책의 추진력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법제의 강조는 이와 함께 중앙정치에서 이념성을 중시하는, 당을 중심

으로한 원로 및 보수파의 권력을 침식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기능적 분리는 자연히 권력의 분산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등소평은 무엇보다도 인사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 정의 요직을 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등소평 스스로 국가주석이나 당서기 등을 차지하는 대신 2선에 머무르면서 실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해 왔으며 최고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대신 집단적 지도체제를 이끌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문제에서의 권력분배 원칙은 권력기구의 개편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1978년 당 11기 3중전회에서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查委員會)가 설치되었고, 1980년 2월에는 당 서기처(書記處)가 부활되었으며, 1982년 12전 대회에서는 중앙고문위원회(中央顧問委員會)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당, 특히 정치국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2전 대회에서는 당 주석제가 폐지되었으며 같은 해 이뤄진 헌법 개정을 통해서는 국가 중앙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국가 주석제가 부활되었다. 국가 주석제의 신설과 당 주석제의 폐지는 당의 권한 약화라는 의도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 중앙군사위원회의 신설은 그동안 당의 중앙군사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던 군에 대한 통제권을 이원화하여 분산시키고 과거의 당의 군대라는 성격을 국가의 군대라는 차원으로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또한 국가주석, 전인대(全人代)의장, 국무원 총리 등 고위직의 임기제를 실시하여 권한의 독점을 막고 권력의 신진대사를 꾀했다.

그러나 권력분산화는 이와 함께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는 듯하며 표면적으로는 이 점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관리체제는 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대담하게 권력을 하방(下放)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지방, 기업, 노동자 개인이 4개 현대화에 적극성을 발휘하는데 불리하고 현대화된 경제관리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실행하는데도 불리합니다” (등소평 I : 165)

라는 등소평의 말은 바로 권력 분산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화는 하부단위로의 권력이전이라는 측면 외에도 기층 단위와 인민들의 적극성을 동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등소평 II : 159). 이것은 관료주의 병폐의 극복과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인민들의 동원과 활성화는 경제적인 것에 국한시켜 신중하게 통제되고 있다. 특히 천안문사태 이후 이러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분야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움직임은 철저히 제어하고 있다.

세번째는 전문화의 강조이다. 과거 모택동사상이 특정 지식의 획득보다는 공산주의의 이상적 인간형이라는 이념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그 결과는 교조주의와 경제건설에 필요한 전문가의 부족 및 권력의 중앙집중과 정부기구의 비대화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비능률과 관료주의 및 이념적 완고함 등 과거의 폐해를 교정하고 경제발전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기구를 전문성에 따라 합병, 축소, 개편하는 등의 정리가 요구되었으며 전문지식 및 이에 대한 교육이 중시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깊은 간부의 등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의 낙후성과 보수화를 막고 효율과 전문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당 정치의 연속성을 위한 조작적 보장이란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다(등소평Ⅱ:108).

이상에서 살펴 본 등소평의 정치개혁은 과거의 유산으로부터의 탈피와 개혁, 기방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그것이 사회주의 체제의 약화나 대중의 정치적 활동성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절되고 있다.

3. 새로운 사회주의의 이념

모택동사상에 대한 재평가는 그것을 명목상 중국의 지도적 사상으로 존속시켰지만 실제 내용을 감안할 때 사실상 모택동사상을 형해화(形骸化)시켜버린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일어난 이념적 공백상태를 메우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대체이념은 사상해방과 실사구시이다. 그리고 이 두 이념은 모택동사상으로 포장되었으며 후에 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로 선전되었다.

사상해방에 대한 강조는 말할 나위없이 모택동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테 있다. 모택동사상의 재평가를 통해 모택동사상의 핵심을 그것의 비교조직인 성격으로 규정하고 사상해방을 통해 모택동에 대한 도그마적 해석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상해방이 사상의 민주화나 자유화를 의미하지 않음은 1979년 ‘민주의 벽’으로부터 작년의 천안문사태

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등소평의 사상해방의 목적은 민주화가 아니라 중국의 현대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이념적 도그마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4인방을 분쇄한 후 자본계급자유화라는 사조가 나타났는데 이 사조는 서방자본주의 국가의 민주와 자유를 숭배하고 사회주의를 부정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현대화를 실현해야 하지만 자유화를 하거나 서방자유주의의 길로 나아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등소평 Ⅱ : 134)

라는 말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등소평이 추진하고자 하는 현대화 노선이 사회주의의 교리가 규정한 수단과 방법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하지만, 등소평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산사회 성취를 위한 수단이 반드시 공산주의의 교조적 틀에 따라 제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그의 유명한 ‘黑貓白貓論’을 떠올리게 된다. 비사회주의적 방법에 의한 공산사회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 등소평으로서는 바로 그 비사회주의적인 방법—곧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이라고 하는 교리상의 문제를 사상해방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며 이는 다시 정책의 정당성과 능률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요컨대 사상해방의 문제는 중국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시급히 요구되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된 것일 뿐이며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의 약화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등소평체제가 모택동시대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에 대한 경제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상해방의 문제는 소위 4항 기본원칙의 고수에 의해서 보충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 마르크스-레닌-모택동사상의 견지, 人民民主專政,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라고 하는 4항 기본원칙은 결국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계속 존재할 것이며 사회주의의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친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사상해방과 근대화 추진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이념적 지향성이 강한 보수파의 주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어 왔다. 1980년대 초 이후 4항 기본원칙에 대한 강조의 빈도나 강도는 약해져 왔으나 1988년 이후 학생들의 시위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그것에 대한 학습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천안문사태 이후에는 과거 문화혁명기에 이념적 우상으로 조작된 뉴봉(雷鋒)에 대한 찬양이 새삼스럽게 등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리나 이와 같은 모습들은 그것이 비록 사회주의 이념성에 대한 강조이기는 해도 과거 모택동 당시에 행해졌던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회주의 원칙에 대한 강조는 개혁, 개방정책을 통해 야기되는 기강해이의 문제나 정책의 범위와 속도의 완급을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이념형의 구현을 목적으로 했던 모택동 시대의 것과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문제 시되고 있는 것은 개혁, 개방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래사조에 대한 오염이나 도덕성 상실 등 사회기풍의 해이와 문란으로, 이의 교정을 위해서 중국은 사회주의의 원칙 뿐만 아니라 전통적 규범까지 강조하는 다양한 계몽운동을 펼치고 있다. 예컨대, 등소평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며, 五講, 四美, 三熱愛⁽⁸⁾를 견지하여 전국 인민들이 이상, 도덕, 문화지식, 규율성을 갖도록 교육시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소평 Ⅱ : 124)

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 표현 속에는 사회주의의 원칙 뿐만 아니라 예절, 도덕이나 언어, 행위 등 일반적인 사회규범의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한편, 사상해방이 근대화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실사구시는 그것의 직접적인 행위의 원칙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미 실사구시는 모택동사상의 핵심으로 재해석되었고 마르크스주의의 사상기초로 제시되었다(등소평 I : 162-163). 또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현재의 주요모순에 대해서도, 과거 모택동이 부단혁명을 제창할 때 근거가 된 계급간 모순의 존속 대신 날로 증가하는 인민의 물질문화적 수요와 사회생산력사이의 모순(조자양, 1987 : 250)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것 또한 모택동사상으로 윤색되었는데, 요컨대 이는 모택동을 생산력 해방론자로 변형시켜 등소평의 노선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광수, 1988 : 121).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빈곤의 탈피와 그것을 위한 생산력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등소평은 이에 대해

(8) 五講은 講文明, 講禮貌, 講衛生, 講秩序, 講道德이며, 四美는 心靈美, 言語美, 行爲美, 環境美를 일컬으며, 三熱愛는 热愛社會主義, 热愛祖國, 热愛共產黨을 말한다.

“전국 이후 우리에게 결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산력 발전에 대하여 좀 소홀히 한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빈곤을 청산해야 합니다.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며 공산주의는 더구나 아닙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이란 바로 생산력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등소평 Ⅱ : 88)

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사구시의 정책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 협력 등 대외관계에서 큰 변화를 보여 왔지만 보다 중요한 조치는 절대적 평등과 이념적 자발성의 포기 및 물질적 자극의 채택이다. 이러한 조치는 모택동사상의 주요한 특징이 절대평등과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인간형의 추구라는 점에 비교할 때, 과거와 획을 긋는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배는 노동의 분량과 질에 따른다는 새로운 원칙이 성립되었고 소득의 격차도 인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물질적 자극이 도입되었다.

“혁명정신은 매우 고귀한 것이고 혁명정신이 없으면 혁명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물질적 이익의 기초 위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만약 혁생정신만 따지고 물질적 이익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심론이 될 것입니다.”

(등소평 I : 166)

따라서 과거와 같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되지 않게 되었으며 그것은 오히려 유심론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대로, 이것이 정치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치의 내용과 작용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해석이 옳을 것이다(경제일, 1988 : 206-207).

이상에서 살펴본 사상해방과 실사구시의 이념은 그것이 모택동사상의 본질이란 해석과 함께 모택동 사후 중국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이념은 세계관, 정책의 궁극적 목표, 성취를 위한 수단과 방법 등 모든 면에서 모택동이 지향하는 바로부터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혁명의 단계에서 제도화의 단계로 접어든 오늘날의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 이념적 지속성에 대한 전망

이상에서 살펴 본 모택동사상과 등소평 등에 의해 추진되어 온 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는 특정 이념에 대한 교조적 해석을 거부하고 현실적 실천성과 적응성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치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이념이 모두 궁극적인 도달점으로 생각한 사회주의의 이상향과 그 실천수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반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새로운 이념은 의양에 있어 모택동사상의 옷으로 치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단절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는 본질상 구분하기 어려운 사회현상인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불안정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즉 근대화와 개혁, 개방과 같은 진보적 논리와 4항 기본원칙의 고수라고 하는 보수적 논리의 대립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작년의 천안문사태는 바로 이러한 갈등이 극명하게 노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김달중, 1990 : 186).

그러나 이미 개혁, 개방의 추진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두가지 입장 사이에 긴장과 대립상태가 계속되기는 하겠지만 현재 추진되는 정책이나 이념으로부터의 극적인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문사태 이후 반복해서 중국은 현 정책의 고수를 대외적으로 천명해 왔고, 중국 내부에서는 혁명을 체험하지 못한 새 세대의 성장과 근대화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활성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교역중심적인 탈냉전의 국제환경도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해 준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사회주의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모택동사상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그것이 비록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더라도, 중국의 지도적 사상으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 나갈 것이다. 따라서 등소평의 출현이 모택동사상으로부터의 전면적 이탈을 가져 온 것과 같은 급격한 변동, 혹은 모택동사상으로의 회귀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중국은 혁명의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현대 국가로서의 근대화와 제도화가 이뤄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번 천안문사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외국문물의 영향

과 사회주의권의 잇단 붕괴 등 외적인 자극과, 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해 비롯된 중국대중의 활동성 증가 및 기대욕구의 증대가 통제의 수준을 넘는 정치적 요구로 번져갈 경우 중국의 특수성과 독자성이 강조되는 ‘중국적 사회주의’의 틀 속에서 언제까지나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고 있다.

참 고 문 헌

김달중

1990 “1980년대 중국적 사회주의의 평가와 전망,” 김달중 외, 『중국의 개혁정치와 정책』, 서울 : 법문사.

정재일

1988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성격과 이념,” 『중소연구』 12-1 (봄) : 201-239.

한광수

1988 『현대 중국의 정치구조』, 서울 : 온누리.

鄧小平

1989 『등소평선집 I, II』, 이문규 역, 서울 : 인간사랑.

毛澤東

1969 『모택동선집, 4 Vols.』, 1951년판, 北京 : 人民出版社.

趙紫陽

1987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하자,” 『중소연구』 11-4 (겨울) : 245-280.

張 震

1990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우리 시대의 깃발이다,” 『사상문예운동』 (봄) : 384-397.

Campton, Boyd

1952 *Mao's Chin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Ch'en, Jerome

1970 *Mao and the Chinese Revolu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Johnson, Charlmers

1962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Meisner, Maurice

1977 *Mao's China*. London: The Free Press.

1988 『모택동사상과 마르크스주의』, 김광린 역, 서울 : 소나무.

Schram, Stuart

1969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New York: Praeger.

1974 *Chairman Mao Talks to the Peopl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1981 『모택동』, 김동식 역, 서울 : 두레.
- Schwartz, Benjamin
1983 『중국 공산주의 운동사』, 권영빈 역, 서울 : 형성사.
- Snow, Edgar
1985 『중국의 붉은별』, 신흥범 역, 서울 : 두레.
- Wakeman, Jr., Frederic
1973 *History and Will*.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ylie, Raymond
1979 "Mao Tse-tung, Ch'en Po-ta and the Signification of Marxism," *The China Quarterly* 79 (Sep.): 447-480.